“마음 진실하고 공경스러워야”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⑳ 경전을 대하는 마음

“또 문수사리여, 여래 멸도한 뒤 말법 시대에 이 경을 설하려면 응당 안락행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입으로 설하거나 경을 읽을 때에 남의 허물과 경전의 허물을 들어 말하지 말라. 또한 법사들을 가까이 하되 업신여기지 말며, 남의 좋고 나쁜 장단점을 말하지 말며, 성문들의 이름을 들어 그 잘못을 말하지 말며, 또 이름을 들어 그 좋은 점을 찬탄하지도 말며, 또한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와 같은 안락한 마음을 잘 닦음으로써 모든 듣는 이가 그 뜻 거스르지 않을 것이며, 어려운 질문이 있거든 소승법으로써 답하지 말고, 오직 대승법으로 해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체종지를 얻도록 하여야 하느니라.

응당히 일체중생에게 대비의 생각을 일으키고, 모든 여래에게는 자애로운 어버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며, 모든 보살에게는 큰 스승이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시방의 모든 대보살들을 항상 깊은 마음으로 공경하고 예배해야 하느니라. 일체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법을 설하되 법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많게도 말고 적게도 말며, 깊이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또한 많이 설하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문수사리여, 이러한 보살마하살이 말세에 법이 멸하려 할 때 이 안락행을 성취하는 이는 이 법을 설할 때에 어지러움이 없으며, 좋은 도반을 얻어 함께 이 경을 독송하며, 또 법을 들으려는 대중이 생기리니, 들은 뒤에 받아 지니고 지닌 뒤에 외우며, 외운 뒤에 설하며, 설한 뒤에 능히 쓰며 또 남 시켜 쓰게 하여, 경전을 공양하여 공경, 존중, 찬탄하리라.”

‘안락행품’에 설해져 있는 위의 내용은 경전을 대하는 태도와 그 자세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다. 안락행으로 요약된 이 대목의 뜻은 〈법화경〉을 설하려 할 때 우선 마음이 진실하고 공경스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시비를 따지는 비판의 감정을 가져서도 안 되며 오로지 긍정적인 마음이 되어야 경전을 바로 설할 수 있다고 한다. 질문을 받거든 소승법으로써 답하지 말고 대승법으로 설명하라는 말이 특이하다. 〈법화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문이라고 말했듯이 소승의 사변적 이론을 탈피하기를 권한다. 대승경전은 주로 신심과 원력을 강조한다. 이타심의 수행을 권장하기 때문이다.

일체종지(一切種智)란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일체 법이 공한 것을 통달하여, 평등지견을 얻고 동시에 현상의 모든 차별을 사실대로 걸림 없이 아는 것을 말한다.

경전의 글자를 법신사리(法身舍利)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글자 한 자 한 자가 법신에서 나온 사리의 낱알과 같다는 말이다. 또 삼량(三量) 가운데 불언량(佛言量)이 있다. 중생이 지각하거나 체험해 알 수 없는 것을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런 줄 알고 요량하여 믿는 것을 말한다. 현량(現量)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인식하여 요량하는 것을 말한다. 소(牛)를 보고 소라 하고 연기(煙氣)를 보고 연기인 줄 아는 것이다. 비량(比量)은 미루어 아는 것을 말한다. 담장 너머 보이는 소의 뿔만 보고도 소라고 여기는 것과, 산 너머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불이 났다는 것을 짐작해 아는 것이다. 소의 몸 전체를 보지 못하고 뿔만 보고 짐작하고 불꽃은 보지 못했으나 연기를 통해 불꽃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현량과 비량은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새끼토막을 보고 순간적으로 뱀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유식(唯識)에서는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이라 한다. 이때는 현량이 사현량(似現量)이 된다. 사(似)는 사이비(似而非)로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비량도 착각이 된다. 가령 산 너머 피어오르는 것이 연기가 아니고 물안개였을 때는 불이 난 것이 아닌데 연기인 줄 알고 불이 났다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다. 그래서 현량과 비량이 사(似)가 붙어 사현량(似現量) 사비량(似比量)이 되는 수가 있다.

그러나 불언량(佛言量=聖言量)은 사(似)자가 붙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옛날에는 불언량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라 하여 부처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 왔던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이타적 서원 실천하는 ‘출가 보살’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⑳ 출가 보살의 정행(淨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불교권에서는 ‘출가 보살’이라는 표현이 잘 쓰이지 않는다. 아마도 출가자는 당연히 출가 보살인 것으로 여겨 따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인도 대승불교에서 출가 보살은 대승 보살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출가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기존의 출가계인 비구계와 비구니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들에게 적합한 대승계가 어떤 것인지 깊이 고민했을 것이다. 아울러 재가 보살과 다른 출가 보살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초기 대승경전 가운데 바람직한 출가 보살의 모습이 묘사된 것으로 〈화엄경(華嚴經)〉의 ‘정행품(淨行品)’을 꼽을 수 있다. 이품에 나오는 141가지 서원 가운데 130가지 서원은 출가 보살의 정행(淨行), 즉 출가도(出家道)라고 할 수 있다. 재가 보살의 서원보다 출가 보살의 서원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출가를 지향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는 보살이 집을 버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수행자의 하루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다.

첫 번째의 득도수계(得道受戒) 부분에서는 보살이 살던 집을 떠나서 승가람(僧伽藍)에 들어와 여러 스승에게 나아가 출가하기를 청하여 마침내 계를 받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 부분에 삼귀예문(三歸禮文)으로 불리는 유명한 게송이 나온다.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할 때는, 마땅히 중생이 부처님의 종자[佛種]를 잇도록 위없는 뜻을 내기를 원해야 한다. 스스로 법에 귀의할 때는, 마땅히 중생이 깊이 경장(經藏)에 들어가 지혜가 바다와 같기를 원해야 한다. 스스로 승가에 귀의할 때는, 마땅히 중생이 대중을 통솔하여 일체에 걸림 없기를 원해야 한다.” 이 게송을 통해 삼귀의(三歸依)를 하는 보살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다.

두 번째의 실내작법(室內作法) 부분에서는 보살이 오전 중에 할 것으로 여겨지는 일련의 행동이 묘사되어 있다. 수행과 관련된 행동으로는 당우(堂宇)에 들어가 자리를 펴고, 몸을 바르게 해 단정하게 앉고, 결가부좌로 정(定)과 관(觀)을 닦고, 가부좌를 풀고 앉는 것 등이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동으로는 옷을 입고, 양치질하고, 대소변을 보고, 얼굴과 손을 씻는 것 등이다.

세 번째의 출문(出門) 부분에서는 보살이 사찰에서 나와 자연환경을 접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네 번째의 행걸(行乞)과 청식(請食) 부분에서는 보살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걸식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다섯 번째의 경행(經行)과 순례(巡禮) 부분에서는 보살이 경행하고 부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여섯 번째의 취침작법(就寢作法) 부분에서는 보살이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언뜻 보기에 출가 보살의 모습은 기존의 출가자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일본의 불교학자인 스치하시 슈코(土橋秀高)가 언급했듯이, 승가(僧伽)의 유지에 필요한 법규(法規)와 작법(作法)을 지키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비구와 사미의 위의법(威儀法)이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오히려 이전에 없었던 항목이 추가된 행의(行儀)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출가자와 달리 출가 보살에게는 이타(利他)의 행원(行願)을 바탕으로 한 위의를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이전의 출가계에서 육체적 · 언어적 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출가자로서의 위의를 갖추게 한 것과 다르다. 아울러 130가지 서원은 출가 보살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예시로 볼 수 있다. 이런 예시가 일상화된다면 출가 보살은 언제 어디서나 이타적인 서원을 세워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⑳ 금강좌(金剛座)

성스러운 풀 쿠샤풀

〈Kūśa〉

완전한 깨달음을 위해 명상에 들기 전, 석가모니가 농부로부터 한 다발의 풀을 받았다는 것을 불자들은 기억할 것이다. 석가모니는 그 풀을 받아 보리수 밑에 깔고 동쪽을 향해 앉아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그 풀을 보시한 사람은 소티야(Sottiya)였다. 그는 아마도 풀을 잘라 팔던 농부였거나, 그 풀을 필요로 했던 바라문으로 보인다. 그의 이름은 그가 단순한 농사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는 이름대로 ‘(베다) 경전을 공부한 사람’ 이었을 것이다. 석가모니는 그 한 단의 풀을 받아 보리수 밑에 깔고 몸을 꼿꼿이 세워 가부좌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자리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결심했다. 깨달음 직전에 앉았던 그 결의에 찬 자리를 우리는 후에 금강좌(金剛座)라고 부른다.

이 장면은 경전뿐만 아니라 조각을 통해서 여러 번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님이 풀을 받아 자리를 만드는 장면을 왜 고대 불교인들이 여러 번 반복해 말하고 있는가는 별로 의문을 갖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앉을 자리가 딱딱한 맨 땅이라 부드러운 풀을 깔아 편안한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단순한 일이었다면 굳이 그 풀을 보시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고대 불교인들도 이 장면을 경전에 남기거나 돌에 새겨 기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장면이 반복되는 이유는 고대 힌두교나 불교의 전통 속에서 풀을 받아 자리를 만드는 일이 의미 있고 상징적인 행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초기 힌두교에서 종교적인 수행을 위해서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리를 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사용되는 풀이 꾸샤(poa cynosuroides)풀이다. 길상초(吉祥草)라고 부를 수 있는 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풀이 쿠샤(Kūśa)풀이다. 쿠샤는 다르바(Darbha)라고도 부르는데 인도의 여러 종교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가장 성스러운 풀 가운데 하나다. 한문으로는 음사하여 구시(矩尸)나 구서(俱舒) 등으로 옮겼고, 길상초나 묘초(妙草)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 풀을 신성시 했던 고대 인도의 전통은 베다문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 힌두교에서 사제들은 이 풀 위에 앉아 제사를 지내거나 신에게 바치는 공양물을 이 풀 위에 올려놓기도 했다. 고행자들은 이 풀로 엮은 돗자리 위에 앉아 명상에 들기도 하는데, 의식을 집중할 때 외부의 산란한 기운을 차단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명상을 위한 이상적인 자리로 생각했던 것이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 풀이 갖는 중요한 기능은 ‘순수함’과 ‘정화’의 기능이었다. 물과 풀의 본질 그 자체라고 부를 정도로 볼만큼 깨끗한 풀로 인식했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현재 인도와 네팔 등지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요가수행자들은 이 풀로 만든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 북인도와 네팔 테라이 지역에서 많이 자생하는데, 부처님의 열반지였던 쿠시나가르라는 지명이 여기서 유래했다는 견해도 있다. ‘쿠샤풀(쿠시)이 많이 자라는 도시(나가르)’라는 의미로 말이다.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그럴듯한 설명이다. 이 풀로 만든 돗자리는 일반 볏짚으로 만든 것보다 비싼 가격에 팔리며, 이 풀의 종교적 가치를 아는 서양의 수행자들을 위해 현재 인도와 네팔에서는 이 풀로 짠 작은 돗자리를 수출하고 있을 정도다.

이렇듯 현재까지도 이 풀의 종교적 유용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이 풀이 갖는 특성에서 기인할 것이다. 이 풀은 번식이 빠를 뿐만 아니라 땅 속 깊이 단단히 뿌리를 내려 쉽게 뽑히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고대 인도 문헌에서 이 풀은 크샤트리야의 단호한 결단력과 강한 의지를 의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풀의 성분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약용으로도 사용했다. 이러한 약성 때문에 이 풀은 오래전부터 정신적인 견고함과 집중이 요구될 때 필요한 풀로 여겨졌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전통예술 | 자체제작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법고
법당천도법고
태 징
목 어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www.yangjikukak.com